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회 : 문승래(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 발표 : 전홍택(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이영섭(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진영(KDI 경제교육실장)
- 토론 : 김진영(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정규재(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홍택(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이영섭(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진영(KDI 경제교육실장)

- I. 경제이해력과 경제교육의 중요성
- II. 경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III. 개정 경제교육과정의 평가
- IV.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I. 경제이해력과 경제교육의 중요성

-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은 소비자와 생산자로서, 또 저축자와 투자자로서 경제적 선택에 직면하게 됨. 경제교육의 목적은 그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정보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이해력(Economic Literacy)을 키워 주는 것임.
 - 경제교육은 또한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적응능력을 배양시켜줌.
- ☐ 경제교육은 시장경제제도는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에도 기여함.
 - 시장경제는 시장참여자들이 경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만 원활하게 작동함.
 - 경제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경제사회현안에 대한 상충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논리적 사고능력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정치발전에 기여.

- 최근 들어 경제이해력과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OECD국가들이 경제 및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세계화, 금융 산업의 발전, 그리고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 및 금융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임.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임, 즉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논리적 사고능력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짐.
 - 금융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첨단 금융상품이 계속 출현함으로써 금융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이해하고 자신의 니즈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한편 생애주기에 맞게 금융자산과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경제 및 금융이해력이 중요해짐.
 - 선진국에서는 복지제도의 성숙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종래의 공적연금제도로는 은퇴자들의 노후생활보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개인들의 저축증대를 통해 노후생활 보장을 보강할 필요가 대두됨. 이에 따라 이 같은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경제·금융 교육을 강조하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화, 금융 산업의 발전, 고령화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최근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사회의 갈등과 대립해소를 위해서도 경제이해력을 향상시켜주는 경제교육이 더욱 중요해짐.
- 그러나 우리 경제가 정부주도 발전체제에서 시장중심 발전체제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 및 이해는 아직도 정부주도 발전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많은 학생들은 경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해 운용되며, 정부의 주도 없이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함.

- 자신이 창업을 할 때 최선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에서의 기업들은 지나치게 영리만 추구한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경제논리는 감성이 결여된 차가운 것이어서 사회를 훈훈하게 하기보다는 대립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 이러한 그릇된 인식 및 이해부족은 상당 부분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이 충분하지 않고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서 기인함.
-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경제의 내용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접하더라도 흥미 없이 피상적으로만 접하는 경우가 많음.
 - 아울러 교과내용이 왜곡되어 있고 내용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킴.
- 경제교육의 부실로 경제에 대한 오해 및 무지가 확산되는 경우 결국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에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우려가 큼.
-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은 결국 경제력에서 나오고 미래의 경제력은 현재의 경제교육 수준에 영향 받는 경향이 큼.
- 세계 각국은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정부, 공공단체 등의 공공부문이 합심하여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경제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경제교육협의회 (NCEE)¹⁾, 연방은행(FRB) 등 다양한 기관들이 경제교육 담당 교사를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회 및 정부도 법률 제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21세기를 대비한 교육법(Educate America Act, 1994)에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K-12)까지 학생들이 배워야 할 9개 핵심과목 중 하나로 경제학을 선정

1)미국의 NCEE(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단체임. 미연방법은 경제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미연방정부는 NCEE의 교육 자료 개발 및 교사연수 등의 경제교육 지원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경제교육향상법’(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2004)을 제정하여 경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경제교육협의회(NCEE)를 5년간(2004~2008) 매년 150만 달러 지원.
- ‘금융이해력향상법’(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 2003)을 제정하여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5년간 5억 달러를 투입하여 국민대상의 금융교육을 지원.
- 일본의 경우에도 내각부 경제·재무성이 주축이 되어 2005년을 ‘경제교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제교육 서미트를 개최해, ‘경제교육 추진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고 경제교육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
- OECD도 금융무지가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제고에 따라 2003년부터 금융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회원국들에게 금융교육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금융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경제교육협의회가 출범하고,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에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음.
- 2007년 처음으로 본격적인 경제교육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보다 지속적인 통계자료 확보가 필요함.
-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에 반영되는 부분은 여전히 미진함.
- 본 연구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 정리하고 2007년 개정된 경제교육과정이 이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평가하고자 함.
- 아울러 이를 토대로 향후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II. 경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경제 과목의 중요도 및 선호도

(1) 우리나라의 실태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은 7~10학년(중1~고1) 기간 중에 배우게 되는데, 경제교육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7~10학년 총수업 시간 중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0.7%(=31/4,692)이며, 사회과 총수업 시간 중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6.1% (=31/510)에 불과한 실정임.

<표 1> 국민공통과정 사회과목의 단위 구성 및 수업시간

	지리		세계사		국사		일반사회				합계	
							정치, 법, 사회문화		경제			
	단원	시간	단원	시간	단원	시간	단원	시간	단원	시간	단원	시간
7학년	7	71	3	31	--	--	--	--	--	--	10	102
8학년	--	--	4	37	4	37	3	28	--	--	11	102
9학년	2	21	--	--	6	63	3	31	2	21	13	136
10학년	4	41	2	20	6	68	3	31	1	10	16	170
합계	13	133 (26.1)	9	88 (17.3)	16	168 (32.9)	9	90 (17.6)	3	31 (6.1)	50	510 (100)

주: ()안의 숫자는 백분율을 나타냄
자료: 전홍택·김진영(2006)

□ 이러한 문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11~12학년(고2~고3)에 해당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경제 과목은 사회과목 전체의 9.7%(=102/1,054)에 불과

<표 2>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목의 수업시간

지리			역사		일반사회				합계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136	136	102	136	136	102	102	102	102	1,054

자료: 전홍택 · 김진영(2006)

- 중 · 고등학교 수업시간 구성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선호에서도 경제과목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사회과목 선택 현황을 보면 경제과목 선택은 총 9개의 사회과목 중에서 한국근현대사, 한국지리, 사회문화에 이어 4위를 차지
 - － 경제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2007년 현재 1,457개 학교 중 40%인 606개 학교에 불과

<표 3> 일반계 고등학교 사회과목 선택 현황

과 목		학생 수		순 위
		2006	2007	
지리	한국지리	245,122	254,291	2
	세계지리	46,592	47,607	8
	경제지리	26,189	26,074	9
역사	한국근현대사	284,146	304,586	1
	세계사	75,337	70,133	7
일반사회	법과 사회	84,950	81,693	6
	정치	105,943	106,705	5
	경제	110,760	112,447	4
	사회문화	230,152	241,172	3
학교수 (개)		1,437	1,457	
경제 과목 채택 학교수 (개)		589	60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 또한 수능시험 사회탐구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에서도 경제 과목은 총 11개 과목(윤리 및 국사 추가) 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간 정도의 선호에 그침: 사회탐구 응시자 대비 27.8%, 총응시자 대비 16.0%를 보임.

<표 4> 대학 수능시험 응시 현황 (2007)

과목		학생 수	순위
윤리		161,421	4
국사		69,507	7
지리	한국지리	214,499	2
	세계지리	37,917	10
	경제지리	54,289	9
역사	한국근현대사	168,414	3
	세계사	33,120	11
일반사회	법과 사회	62,434	8
	정치	106,392	5
	경제	88,068	6
	사회문화	227,422	1
사회탐구 응시자		316,490	
총 수능 응시자		551,884	

주: 경제응시자 비율은 사회탐구 응시자 대비 27.8%, 총수능 응시자 대비 16.0%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외국과의 비교

- 미국에 비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경제과목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 50개주 모두 경제학을 교육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주요 17개 주²⁾는 경제과목을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 － 7개주는 개인금융(Personal Finance)과목을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
 - 미국에서도 경제과목의 선호도는 사회과목 중 중간 정도(총 7과목 중 4위)를 보이고 있으나, 학생들의 경제 과목 수강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50%에 달하며 다른 과목에 비해 증가 속도도 빠르게 나타남.

<표 5>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과목 이수 비율(%)

	1982	1990	1998
경제	24.1	43.6	45.8
미국 역사	81.5	91.2	90.5
미국 정부와 정치	62.2	77.4	81.2
세계사	36.3	51.9	60.2
서양사/문화	11.4	10.3	9.1
사회학/심리학	32.4	32.6	32.7
지리	16.0	21.4	24.5

자료: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Walstad(2005)에서 재인용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경제과목의 위상이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남.
 - 고등학교 사회과목 총 24단위 중 정치·경제 과목은 겨우 2단위에 불과해 경제과목 비중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2)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인구가 많은 핵심 주와 알라바마,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임.

- 대학시험에서도 정치·경제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학교에서의 정치·경제 과목 선택비율도 1/3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표 6>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목 단위수

지리·역사						공민			합계
세계사A	세계사B	일본사A	일본사B	지리A	지리B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	
2	4	2	4	2	4	2	2	2	24

자료: 전홍택·김진영(2006)

- 영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에서 경제과목의 상대적인 위상은 낮은 것으로 짐작됨.
- 영국정부는 성공적인 경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교육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핵심 내용인 시민사회(Citizenship)란 과목을 도입하였음.
 - － 재무부와 교육직업부가 협력하고 금융서비스청(FSA)이 주관하여 영국인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사업(국가 커리큘럼 개정, 웹사이트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교육 실시 지침을 제시하여 전 학년에 걸쳐 개인금융 교육을 강화.
- 중국은 급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고등학교 1학년까지 경제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를 사실상 공식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학생들의 경제 관련 과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큼.

2. 교육현장: 교과내용 및 교수방법

(1) 우리나라의 실태

- 학생들은 경제교육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경제교육의 교과내용이나 교수방법은 이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에서 받는 경제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49.5%가 보통 이상으로, 36.1%가 보통이라고 답변 반면 보통 이하는 12.2%에 불과

- 경제교육의 문제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교육의 유용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관련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음.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느낌이 강하게 나타남.

<표 7> 학교 경제수업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초등학교	고등학교
매우 그렇다	12.6	8.0
그런 편이다	40.3	41.5
보통이다	38.5	36.1
그렇지 않은 편이다	6.6	9.2
전혀 그렇지 않다	1.8	3.0
무응답	0.2	2.3
	총 2,307명	총 1,916명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표 8> 타 과목(영역)에 비교한 상대적 난이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매우 그렇다	4.3	4.0	7.3
그런 편이다	19.8	26.8	37.3
보통이다	59.5	48.4	39.8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4	18.2	11.5
전혀 그렇지 않다	2.9	2.6	1.8
무응답	---	---	2.4
	총 2,307명	총 1,399명	총 1,916명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 교과내용 문제점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의 목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거나 이념적인 목표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임.

-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경제지식과 사고력 및 가치관을 토대로 하여 소비자, 생산자로서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 구실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나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느낌을 줌.
-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실용적인 항목보다는 이론적 측면,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는 항목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경제교육 목표에 따른 중요도 인식 차이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적인 경제이론 및 개념	3.30	3.57
실용적인 경제지식 습득	3.23	3.11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3.43	3.31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	3.36	3.39
	총 1,399명	총 1,916명

주: 각 항목의 최고점수는 5점 만점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 교수방법도 개념설명 위주로 되어 있고 실생활과 직결된 방식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중·고등학교 경제관련 과목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방식은 설명식 수업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방식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도도 설명식 수업이 가장 높으며 역할놀이 수업이나 토론 수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음.
- 설명식 수업에 비해 다른 방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10> 경제관련 과목(영역)의 수업방법 (%)

	중학교	고등학교
설명식 수업	33.0	38.4
토론 및 토의	11.6	10.9
인터넷 및 신문 활용 수업	16.0	16.8
역할놀이	8.9	7.8
시뮬레이션	10.0	8.8
모둠 및 협동학습	14.3	10.3
기타	6.2	6.9
	총 4,050명	총 4,758명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표 11> 수업방법에 따른 만족도

	중학교	고등학교
설명식 수업	3.27 (1)	3.48 (1)
토론 및 토의	2.77 (7)	3.14 (3)
인터넷 및 신문 활용 수업	3.18 (3)	3.42 (2)
역할놀이	2.89 (5)	2.76 (7)
시뮬레이션	3.22 (2)	3.08 (5)
모둠 및 협동학습	3.04 (4)	3.01 (6)
기타	2.87 (6)	3.13 (4)
	총 4,050명	총 4,758명

주: 각 항목의 최고점수는 5점 만점. ()안의 숫자는 순위를 나타냄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2) 외국과의 비교

- 미국의 경우 경제교육 목표나 교과과정 운영 등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실용주의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현명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경제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문맹을 탈피하기 위해 기초교육이 필요하듯 경맹(economic illiteracy)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미국의 경제교육 내용은 Framework for Teaching Basic Economic Concepts 및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³⁾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교육 내용 중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으로는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특화된 교육기관이 존재한다는 점, 실생활과 밀접한 체험적인 교육을 한다는 점, 그리고 금융을 많이 강조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에는 과거의 전통에서 탈피하고 실용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음.
 - 일본의 경제교육 목표는 경제학의 기본개념, 경제구조 및 제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독특한 길을 걸어 온 자국의 경제상황을 이해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 일본의 경제교육 내용은 과거 전통이 일부 남아 있어,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의미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아울러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음.
 - －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과거의 전통이 상당히 퇴보하고 저축보다는 투자를 강조하면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교육 내용이 전환됨.

3)NCEE가 경제학자와 교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1984년에 Framework를 작성하였으며 다른 사회과목들이 국가 차원의 내용 표준 체제를 작성함에 따라 Framework를 기초로 하여 1997년에 Standards를 작성한 바 있음.

- 영국의 경우 미국과 유사하게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보다 광범위한 공공의 이슈들을 강조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경제교육(및 경영교육)의 목표를 경제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산업사회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 태도, 인성 및 사회성 개발에 두고 있음.
 - 영국의 경제교육도 미국의 경제교육처럼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결합해 교육하고 있지만, 경제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교육을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중시한다는 점, 지속성장, 환경, 범세계적인 상호의존성 등 보다 광범위한 이슈들을 많이 다룬다는 점, 그리고 현실을 고려해 유럽경제 내에서의 영국의 위치 및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실용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 중국의 경우 경제교육의 목표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입장에서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념과는 상관없이 실용성을 강화하는 것임.
 - 중국의 경제교육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과 시장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혼재되어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시장경제 및 기업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고 창업교육, 금융교육 등 실제적인 경제교육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어,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교육보다도 더 실용주의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표 12> 각국 경제교육 목표 비교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영국
체계적 경제지식을 토대로 한 민주시민 양성	경제지식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사회주의 교양 강화 및 풍부한 문명생활 영위 기반 마련	일상생활에서의 현명한 경제적 결정 능력 배양	산업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인성 개발

자료: 이지선(2006)을 이용해 정리

3. 교사공급구조와 교사의 경제이해력

(1) 우리나라의 실태

- 중·고등학교 경제교육 담당교사들의 전문성과 경제과목에 대한 동기 유발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13> 경제관련 과목(영역) 교사들의 출신학과(%)

출신 학과별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28.8	38.7
	공통사회교육과	3.3	2.6
	지리교육과	17.4	5.9
	역사교육과	15.1	3.1
	기타	4.1	7.6
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1.8	1.6
	공통사회교육과	0.3	0.3
	지리교육과	0.5	0.1
	역사교육과	---	---
	기타	---	---
일반대	경제학과	5.9	10.6
	비경제학과	15.3	17.3
교육대학원	일반사회전공	3.8	7.2
	공통사회전공	0.3	1.0
	지리전공	0.3	0.1
	역사전공	0.8	0.7
	기타	2.3	3.1
무응답		0.8	---
		총 391명	총 682명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 중·고등학교에서 경제영역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출신 전공을 살펴보면 경제학과 비율이 겨우 5.9%(중학교) 및 10.6%(고등학교)에 불과하고, 경제영역 담당 교사들의 많은 수가 관련 강좌를 전혀 수강하지 않았거나 겨우 1~2과목만 수강함.
- 경제관련 과목(영역)을 수업하게 된 동기도 자신의 전문성, 관심 등에 따르기보다는 단순한 수업시수 배분에 따르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음.

<표 14> 학부 재학 시 수강한 경제학·경제교육 관련 강좌 수(%)

수강 과목 수	중학교	고등학교
없음	11.0	3.7
1-2 과목	36.1	24.6
3-4 과목	26.1	28.9
5과목 이상	26.1	42.8
무응답	0.8	---
	총 391명	총 682명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표 15> 경제 관련 과목(영역) 수업 담당 동기(%)

담당 동기	중학교	고등학교
경제관련 과목을 담당한 경험이 많아서	5.9	7.0
경제 수업에 자신이 있어서	2.8	7.2
학부 전공과 일치해서	21.2	28.3
교사 간 수업시수 배분 과정에서	56.0	46.3
기타	9.7	8.4
무응답	4.3	2.8
	총 391명	총 682명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 경제담당 교사들에 대해 체계적인 재교육 기회도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수준에서는 사회과목 교사 연수 기회가 약 14년 되어야 겨우 한 번 가능한 정도임.

— KDI, 자유기업원 등 연구기관, 경제5단체, 한국은행, JA-Korea,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실시하는 중등 사회과 교사대상 연수 프로그램 이수인원은 연 1,860명 수준으로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 25,000여명의 약 1/14에 불과.

○ 미국에서는 NCEE가 매년 12만명을 교육시키는 한편 교사들을 위한 교재 개발 및 효과적인 교육 방법 공유 등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열악한 상황임.

□ 사전적 및 사후적 교사 관리 시스템의 부실은 교사들의 경제에 대한 전문성 및 이해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음.⁴⁾

○ 교사의 경제 인지도 조사결과 교사의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한 인지도는 52.44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전경련 서베이에 따르면, 교사들은 경제문제를 해석함에 있어 합리적 요소보다는 감정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어 경제교육의 목표와 방향과도 부합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2) 외국과의 비교⁵⁾

□ 외국의 경우 학부과정에서 많은 경제관련 과목을 수강하도록 요구하거나 경제교사 교육을 통해 교수들의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분야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들은 경제학 기초과목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사회분야 교사들은 적어도 2개 과목을 이수해야 함.

○ 경제 분야를 전담하는 교사는 최소 6개 과목을, 그리고 전문(advanced)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10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4)박명호(2005)

5)이지선(2006)

- 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NCEE는 각 대학과 연계해 매년 경제교사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경제교육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해,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로 전문 교사가 거의 없다는 점이 자주 지적됨.

- 중고등학교의 사회나 공민 시간에 경제를 가르치고 있지만 담당 교사의 대부분이 역사 등 다른 분야를 전공해 효율적인 학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아울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경제전문지식을 얻기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이 미약함.

<표 16> 일본 중학교 공민과 교사들의 대학·대학원 전공 (%)

역사학	경제학	법학	교육학	사회학	지리학	심리학	경영학
24.6	22.8	13.5	12.3	11.7	9.9	3.5	3.5

자료: 전홍택·김진영(2006)

□ 중국의 경우 명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지만, 사회주의 관련된 내용과 시장경제 관련된 내용을 동시에 가르치기 위해 사범대학에서 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시장경제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 정규교사들이 노력을 할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외국 교육기관(JA-China, IBM, HP 등)에게 학생들의 경제교육을 의뢰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교사양성은 정부에 의해 관장되고 있는데, 모든 교사들은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해야 함.

-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경제학(Economics) 혹은 경영학(Business Studies)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교육대학원 과정 1년을 수료해야 함.

- 이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교습방법에 대한 숙련을 요구하고 있음.

4.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1) 경제이해력 시험 결과⁶⁾

-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보임(표 17).
- 한미일 3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교생들은 55.7점을 얻어 미국의 61.2점, 일본의 57.3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⁷⁾
- 또한 경제과목 수강 학생(57.7점)과 비수강 학생(54.7점) 간의 차이는 3.0점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이 경제이해력을 증진시키는데 별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함.
- 경제교육이 심화될수록 미국에서는 경제과목 수강자와 비수강자 간 상대적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는 별 차이가 없게 나타남.
- 이러한 특징은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제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 즉 전문 교사가 거의 없다는 문제점에서 연유된다고 판단됨.

<표 17> 한미일 경제이해력 테스트 비교

한국			미국			일본		
수강자	비수강자	평균	수강자	비수강자	평균	수강자	비수강자	평균
57.7	54.7	55.7	64.3	47.6	61.2	57.2	57.7	57.3

자료: 유정호(2003)

6)유정호 (2003) 참조.

7)미국 NCEE의 경제이해력시험 문제를 자국의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한국 및 일본의 고등학생들에게 테스트한 결과임.

□ 유럽국가, 중국 등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자료 여건 상 어려움.

- 그러나 유럽권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경제과목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에서의 시장친화도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2) 금융이해력 시험 결과⁸⁾

- 미국과 한국의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은 모두 60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나 한국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45.2점(100점 만점)으로 미국 고등학생의 51.9점에 비해 더 낮은 수준(표 18)
- 한국 학생의 금융이해력은 돈 관리 영역 문항에서 제일 낮은 반면 미국 학생은 저축과 투자 영역 문항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음.

<표 18> 한·미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비교¹⁾

영역	한국(2003)	미국(2000)
소득	48.7	57.6
돈 관리	39.2	46.8
저축과 투자	46.6	45.3
지출과 분석	44.0	52.1
전체 평균	45.2	51.9

1) : 동일한 문제에 대해 미국은 2000년에 측정하였으며, 한국은 2003년에 측정.
자료: OECD (2005) P.99

8) 미국의 Jump\$Start에서 실시한 고등학생 대상 금융 이해력 측정을 위한 설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최소한 수정하여 사용한 시험 결과임. Jump\$Start는 1995년 미국에서 경제교육, 소비자교육에서 개인 금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연합 조직임.

□ 돈 관리 방법 습득처는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들 모두 가족이 압도적이었음(표 19).

- 미국의 경우 돈 관리 방법을 학교에서 배웠다는 학생의 비율은 5%로 가장 낮았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도 가장 낮게 나타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금융교육이 매우 부족함을 시사

<표 19> 돈 관리 교육 및 경험과 금융이해력

	한국 (2003)		미국 (2000)	
	학생비율(%)	평균점수	학생비율(%)	평균점수
1. 돈 관리 방법 습득처				
가 족	50.2	46.4	57.4	51.8
학 교	5.0	37.2	12.8	51.3
친 구	8.3	41.7	2.1	35.6
잡지, 책, TV	13.6	47.6	3.4	53.7
개인경험	22.0	44.2	23.0	53.5
2. 부모와 돈에 대해 대화하는 빈도				
전혀 안함	13.8	40.9	6.7	42.5
어쩌다가	33.3	45.5	18.2	52.4
가 끄	41.4	46.6	39.1	52.6
자 주	10.9	44.6	34.7	52.6
3. 은행 거래 경험				
없음/모름	13.2	38.5	37.8	49.3
저축예금	8.4	40.6	41.0	53.8
당좌예금(수시입출예금)	56.2	47.5	7.3	45.6
저축과 당좌예금	21.1	45.3	18.2	54.9

□ 양국 모두 가정에서 부모와 돈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학교 외에 가정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표 19)

- 한국의 경우 부모와 돈에 대한 전혀 대화가 없는 학생의 비율이 미국의 두 배로 나타남.

- 양국 모든 은행거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금융거래 체험의 교육적 효과를 시사(표 19)
- 미국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은 1997년에서 2002년까지는 하락하였으나 하락 추세는 2004년 반전되어 2006년에는 2004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표 20).
 - 한국은 2003년과 2006년 두 번의 시험결과를 비교해 볼 때, 금융이해력 점수가 3점 상승하였으나 이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또는 추세적 변화인지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움.

<표 20> 고등학생 금융이해력의 변화 추이¹⁾

	미 국	한 국
2006	52.4	48.2 ²⁾
2004	52.3	
2002/2003 ¹⁾	50.2	45.2 ³⁾
2000	51.9	
1997	57.3	

1) 미국은 2002년, 한국은 2003년

2) 미국 Jump\$tart가 제시한 고등학교 3학년 금융소비자 교육 기준과 현행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생 사회과목 학습내용에 근거하여 출제됨.

3) 미국 Jump\$tart의 문제를 최소한의 수정을 거쳐 그대로 사용

자료 : OECD (2005), 금융감독원 (2003, 2006)

5.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영역⁹⁾

(1)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 경제체제의 내용이 기초경제 단원에서 다뤄지고 있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선언적 지식으로 받아들여 암기하는 것으로 끝날 우려

9) 여기에 제시한 내용은 KDI 경제정보센터, ‘초, 중, 고등학교 경제영역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2006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내용 체계와 연계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시하였음.

- 제7차 교육과정¹⁰⁾은 시장경제의 특징을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제체제를 배우는 배치임. 이러한 편제는 시장 기능과 가격결정에 대한 이해 없이 시장경제를 계획경제와 특성과 비교하는 것과 같아 논리적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음.

-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만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기능을 먼저 배운 후에 시장경제의 특징인 자유로운 거래, 사유재산권의 보호 등을 배우고 시장질서 조정자로서 정부 역할 등을 학습하는 자연스런 흐름을 거스르고 있음.

□ 경제주체들의 윤리적 경제 행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5개 소단원에 걸쳐 제시되고 있어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가르쳐야 할 경제과목의 취지를 퇴색케 하는 편제임.

- 소비자, 근로자, 생산자, 민주 시민의 역할을 다루는 내용이 경제주체들의 윤리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 앞에서 학습한 합리적 선택을 통한 경제주체들의 경제 문제 해결인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의 비교, 비용 대 편익 분석 등과는 동떨어진 경제 문제의 해결을 배우는 셈임.

- 미시경제 영역에 해당하는 ‘시장경제의 이해’ 단원에 포함된 소단원, ‘올바른 경쟁’과 ‘과도한 사익추구 방지와 공동체 의식 실현’도 기업들이 맹목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진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게 할 우려가 있음.

□ 제7차 교육과정은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강화 추세에 있는 금융교육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개인의 신용 관리, 자산 관리, 채무 관리, 재무 설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소단원 ‘물가 안정을 위한 경제주체의 노력’에서 도덕적 규범을 강조하는 것도 경제 문제의 해결이 경제적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비경제적 논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

10)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설계도’라 할 수 있다. 즉 교육과정은 의도된 학교 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수준과 범위로 가르치고 평가하느냐’를 문서로 계획한 교육 설계도이다.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해설(총론)’, 2003년 참조.

-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로 인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어려움을 기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2) 심화선택교육과정

- 시장경제의 성격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경제체제들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구성은 시장 경제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이라는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지 않음.
- 제7차 교육과정은 '시장 기능'과 '시장 실패'를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시장의 실패와 불법, 부당행위의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시장의 역할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시키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정부의 개입은 당연하고 시장 기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왜곡,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제7차 교육과정은 각 단원에 필요에 따라 '우리 경제'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 3개 소단원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경제를 가르치는 내용이 많아 핵심적인 경제 원리의 학습 시간 부족을 초래함.
 - 남북통일 관련 단원은 통일 우리 경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예상을 다루고 있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경제력 차이)나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와 장단기 문제점을 학습하는 데에 부족
- 이외에도 제7차 교육과정은 경제교육에 있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치'와 '윤리'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치와 윤리 교육은 ‘윤리’ 과목의 일부로 가르친다 해도 충분하며, ‘경제’ 과목에서는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습득하고 경제 현상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이론적이어 경제학 원론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이 있음. 물론 이론적인 내용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경제 영역의 모호성이 커져 학습에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경제학의 주요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비교적 골고루 포함시키되, 이론적 측면보다는 실생활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함.

III. 개정 경제 교육과정의 평가

- 1997년에 개정되어 200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 왔던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이 2007년 개정되었음.
- 2007년 2월,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각급 학교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게 될 것임.¹¹⁾
- 여기서는 2007년 2월,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 가운데 사회과 과목의 경제 영역 관련 내용 체계에 대한 특징을 분석 평가하고자 함.

1. 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 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특징¹²⁾

- 현행 교육과정은 중학교 3학년에서 미시 경제단원을, 고등학교 1학년에서 거시 경제단원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 3학년에서 미시와 거시 경제단원을 함께 배우도록 하였음(표 21).

11)각급 학교별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2009년 초등학교 1-2학년, 2010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 2011년 초등학교 5-6학년/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12년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2013년 고등학교 3학년의 순서로 적용

12)KDI 경제정보센터(2006)에서 특징적인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음.

<표 21>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경제 영역 신규 교육과정 비교

현행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비고
1. 경제란 무엇인가 2. 합리적 선택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 3. 경제활동의 역사적 변천 4. 자유 시장 경제의 장점 5. 산업에 따른 사회의 변화 6. 미래 경제의 전망 7. 민주시민의 소비자 역할 8. 근로자, 기업가의 자세 9. 시민의 경제적 의무	1. 희소성의 의미, 다양한 사례 2. 합리적 선택(효율, 형평, 장기) 3. 분업과 교환, 상호의존 4. 경제체제와 경제문제 해결 5. 경제주체(소비, 생산, 정부) 역할 6. 신용 및 자산 관리 등의 재무 설계	<기초경제>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중 3>
1. 시장경제의 특성 2.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 3. 가격의 결정 4. 가격의 변동 5. 가격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 6. 시장 경제의 경쟁질서 7. 올바른 경쟁질서 8. 과도한 사의 추구방지와 공동체 의식 실현	1. 수요와 공급, 영향을 주는 요인 2. 균형 가격의 결정과 변동 3. 자원배분 역할로서 가격 기능 4. 시장의 한계와 정부의 역할 5.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	<미시 경제> 시장경제의 이해 <중 3>
	1. 국민소득과 경제 순환과 변동 2. 경제성장의 의미와 요인 3. 국민경제의 안정 성장과 경제정책 4. 물가문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방안 5. 실업문제와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 6. 국제 거래 및 환율	<거시 및 국제> 국민경제의 이해 <중 3>
1. 국민경제 활동 지표 2. 국내 총생산의 의의와 한계 3. 경제 성장과 그 요인 4. 현대 사회의 경제문제 5. 실업과 그 해결방안 6. 인플레이션과 그 해결방안 7. 경제의 세계화 8. 세계시장과 국제 거래 9.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	1. 문화 2. 정의 3. 세계화 4. 인권 5. 삶의 질	<고1 사회>

- 즉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던 국민 소득, 경제 순환, 물가, 실업, 국제 거래 등의 거시 경제 분야가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새롭게 편입되게 됨.

□ 현행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과목은 지리 영역과 일반사회 영역, 일반사회는 다시 정치, 경제, 법, 문화 영역으로 영역별 분리하여 학습하였으나, 개정 교육과정은 주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표 21)

- 문화, 정의, 인권, 세계화, 삶의 질 등 5개 주제에 대해 정치, 경제, 법, 문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교육하고자 함.

□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들도 상당부분 바뀌었음(표 21).

- 현행 교육과정의 기초경제 단원(경제생활과 경제문제)중,
 - － 소단원 ‘자유 시장 경제의 장점’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시 경제단원(‘시장 경제의 이해’)에서 학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 소단원 ‘산업 사회의 변화’, ‘미래 경제의 전망’은 비슷한 내용이면서 기초 경제 단원에서 학습하기에 애매한 내용이여 삭제되었음.
 - － ‘민주시민의 소비자 역할’, ‘근로자·기업가의 자세’, ‘시민의 경제적 의무’ 등 3개 소단원은 ‘경제주체(소비, 생산, 정부)의 역할’로 하나의 소단원으로 통합
 - － 현행 교육과정에는 없던 ‘신용 및 자산 관리 등 재무 설계’가 소단원으로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되었음.
- 미시경제 단원(시장경제의 이해)은,
 - － 현행 교육과정은 가격 결정에 대한 사전 학습 없이 곧바로 시장경제의 특성과 제도적 원칙을 배우고 있음에 비해 개정 교육과정은 가격의 결정을 학습하고 난 후 가격의 기능을 배우도록 바뀌었음.
 - － 개정 교육과정의 미시경제 단원(시장경제의 이해)에는 사유재산권의 보호, 경제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 － 현행 교육과정의 소단원 ‘과도한 사익 추구하고 공동체의 실현’ 내용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음.

(2) 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평가

- 개정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 요소들이 적절한 대단원에 재배치되어 단위간의 학습연계성이 높아졌으며,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합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이 강조되었고, 부족했던 금융부분이 보완되었다는 점에서 개선되었음.
 -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격 결정을 학습하고 난 후 가격 기능을 학습하도록 한 것과, 자유 시장 경제의 장점을 기초경제단원이 아닌 미시경제단원(시장경제)에서 학습하도록 바꾼 것은 연계성을 고려한 구성이라 할 수 있음.
 - 현행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소단원('민주시민의 소비자 역할', '근로자·기업가의 자세', '시민의 경제적 의무', '과도한 사익추구와 공동체 실현')은 경제보다는 윤리 과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임.
 - 또한 신용, 자산 관리 등 재무 설계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어 그동안 지적되었던 금융 내용의 부족을 보완하였음.
- 그러나 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문제점이 적지 않음.
 - 수업시간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학교 3학년에서 미시경제영역뿐 아니라 거시경제영역까지 함께 학습하게 됨으로써 수업내용이 크게 부실해질 것으로 우려
 - － 학생들의 인지력 발달 수준에 비춰볼 때, 추상성이 매우 높은 거시경제영역을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다룰 경우, 학습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주제 중심 교육 취지 즉 주어진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해 보는 '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주제중심 교과서를 집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임.
 - － 통합 교육 방식의 교과서 개편은 상당한 전문가들에 의한 협업의 산물이어야만 가능할 것이며, 또한 주제에 따라서는 내용이나 가치가 서로 상충되는 분야까지 있어 이를 어떤 틀로 교과서에 담아낼 것인가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주제 중심 방식으로 가르칠 교사도 통합 학습에 많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단됨. 현재와 같은 교사 양성 체제로서는 통합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도 용이하지 않을 것임.
 - － 개별 주제의 학습에 있어서도 어떤 주제는 사전적으로 경제 지식과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교사가 어떻게 조직하고 유기적 연계성을 갖고 가르칠 것인가도 커다란 과제
- 5개 주제에 대한 통합 교육은 그나마 부족한 경제 영역의 수업 시간을 더욱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 문화, 인권, 정의 등 3개 주제는 경제 영역과 관련성이 거의 없는 주제이며, 나머지 2개 주제인 세계화와 삶의 질이 경제 영역과 밀접하다고 하더라도 경제 수업에 할애되는 시간은 축소될 전망이다.
 - － 학생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주제 중심의 통합 교육은 중학교 3학년까지만 배운 일반사회, 지리, 역사 등의 교육 내용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임.¹³⁾
- 경제가 실물 중심 경제에서 금융 중심 경제로 추세가 이동하고 있음에 비춰 금융 교육의 내용이 여전히 부족함.
 - － 금융상품의 복잡화, 고령화, 금융의 글로벌화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 영국, 호주, EU국가들은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2. 개정 심화선택교육과정

(1) 개정 심화선택교육과정의 특징

- ☐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또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택 과목으로 수강하는 '경제' 과목으로만 한정하여 분석하였음.¹⁴⁾

13) 미국의 사회과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가 90년대에 11명의 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개발한 커리큘럼 표준(Curriculum Standard for Social Studies)은 10개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초, 중, 고별로 학습할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사례까지 각급 학교별로 제시하고 있다.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1992), 'Curriculum Standard for Social Studies'를 참조하였음.

14) 선택 과목 '경제'는 두산 출판사의 교과서를 활용하였다. 국민공통과정과 마찬가지로 현행 교육과정은 교과서에 소개된 최소 단원을 제시한데 비해 개정 교육과정은 고시된 대강화 내용만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집필될 교과서와는 다를 수 있음.

- 개정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원론의 이론적 흐름을 따르고 있으며 현행 교육과정에 비해 한국 경제 내용을 크게 축소하였고, 통일 관련 내용은 삭제하였음(표 22).
- － 현행 교육과정은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를 학습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었으나, 개정 교육과정은 이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으며, 통일 관련 3개 소단원도 삭제하였음.
- － ‘시장과 경제활동’ 단원은 현행 교육과정이 시장의 가격결정 과정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이어 시장실패를 학습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시장에 관한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습득한 후, 별도의 단원에서 시장실패를 학습하도록 설계.
- － 현행 교육과정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나, 개정 교육과정은 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과 의미를 학습시킬 것으로 예상됨.

(2) 개정 심화선택교육과정의 평가

- 개정 심화선택교육과정의 ‘경제’ 과목은 현행 교육과정에 비해 경제 이론 흐름과 적합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경제와 통일관련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음(표 22).
- ‘경제’ 과목의 수업 시간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기 되었으며, 경제 수업의 학습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그럼에도 개정 교육과정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¹⁵⁾을 지적하면,
 - 둘째 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인 ‘생산요소’가 전통적인 생산요소만을 다룰 경우 실생활과 유리된 암기식 지식만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보다는 혁신 정신, 도전정신, 위험부담 등으로 대표되는 기업가 정신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15) KDI 경제정보센터가 2008년 4월, 경제학, 경제교육, 경영학 등 관련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정 경제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임.

<표 22> 심화선택교육과정의 경제 영역 신규 교육과정 비교

현행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비고
1. 경제생활의 의미 2. 경제생활의 상호 의존성 3. 희소성과 경제문제 4. 경제정보의 활용 5. 경제 체제 6. 자유시장경제와 한국 경제의 발전 7. 자유 시장 경제와 한국경제 발전	1. 희소성과 기회비용 2. 경제문제, 비용-편익 3. 경제적 유인 4. 교환, 시장 경제 제도 5. 효율성과 형평성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1. 가계의 경제 활동 2. 합리적 소비, 바람직한 소비 3. 기업의 경제 활동 4. 경제 환경 변화와 효율적인 기업경영 5. 정부의 경제 활동 6. 정부의 활동과 재정	1. 생산 요소 2. 소득, 소비, 저축, 신용, 수입, 비용, 이윤, 기술 3. 생산성, 재정활동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1. 시장의 의미와 원리 2. 가격의 기능과 시장의 경제적 역할 3. 경제활동에 대한 시장의 평가 4. 시장의 가격결정 5. 시장 가격의 변동 6. 시장기능의 한계 7. 시장기능의 보완	1. 수요, 공급 2.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3.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4. 시장 균형, 탄력성 5. 경쟁시장, 잉여	시장과 경제활동
	1. 시장실패 2. 외부성 3. 공공재, 독과점, 진입장벽, 정보 4. 소득분배, 재분배 5. 규제, 정부실패	시장기능의 한계와 정부 개입
1. 국민경제의 순환 2. 국민경제 지표의 이해 3.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발전 4. 경제 성장과 소득분배 5. 물가안정과 고용증대 6. 경기변동의 양상과 예측	1. 국민소득 2. 물가지수, 실업률, 이자율, 경제성장 3. 총수요, 총공급 4. 실업, 인플레이션 5. 중앙은행, 재정정책, 금융정책	국민경제의 이해
1. 세계화와 국제거래 2. 비교우위와 국제경쟁력 3. 환율과 외환시장 4. 국제수지 5. 통일 한국의 경제 문제 6. 통일을 위한 경제적 준비 7. 통일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경제 선진화 방안 8. 세계 경제의 동향 9. 지구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의 역할	1. 교역의 이익 2. 자유무역, 보호무역 3. 무역정책 4. 외환시장, 환율 5. 국제수지, 자본이동 6. 국제 경쟁력	세계 시장과 한국경제

-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단위 에서 소득, 소비, 저축, 신용 등을 독립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개인금융’이라는 소단원을 만들어 각 개념들을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넷째 단위인 ‘시장 기능의 한계와 정부 개입’에서 시장과 정부를 대립 구도로 인식할 위험이 있음.
 - － 정부의 역할로서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사유재산제도의 보호(재산권 제도), 자유계약의 강제 이행 담보 등과 같은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강조하여 시장과의 보완적 관계를 학습시키는 것도 중요함.
 - － 첫째 단위에서 다루고 있는 시장 경제 제도를 이 단원으로 옮겨와 함께 다룬다면 내용의 연계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아 질 것임.
- 다섯째 단위인 ‘국민경제의 이해’에서 ‘총수요, 총공급’을 다루는 것은 이론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이 내용은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거나 교사들이 가르치기 쉽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임.
 - －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실업,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등 거시 경제의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원인, 효과, 이해득실, 정부나 개인의 대처 방안을 다루는 것이 교육적으로 유용할 것임.
- 여섯째 단위인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에서는 글로벌 경제 시대를 맞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소단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FTA가 출현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유 대 보호 무역과 같은 논란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있으며, FTA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다루는 것이 의미 있을 것임.

IV. 경제교육활성화를 위한 제언

1.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학계, 경제교육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언론이 협력하여 경제교육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필요.
- 경제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KDI, 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원 등)과 민간단체(대한상의, 전경련, JA-Korea, 전국은행연합회 등), 그리고 언론기관(중앙일보, 투데이경제, 매일경제신문, 어린이경제교실,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등)들이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심점이 없으며 사회적 인식도 아직 부족한 실정.
- 미국에서는 의회가 경제 및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경제·금융교육이 커리큘럼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공공 및 민간 조직들의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재정지원하고 있음..
- 민간단체들도 NCEE 등 수많은 비영리조직들이 경제·금융교육 확대 캠페인을 미션으로 하여 경제담당교사 재교육, 경제교육자료 개발·보급, 경제교육 실태조사, 경제교육공헌자 시상, 경제·금융교육 웹사이트 사업 등을 추진.

2. 경제 이해력 향상을 위한 국가 전략

- 청소년 학교 경제교육의 확대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경제영역 수업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수업 시간의 확대는 다른 과목과 경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 교사들이 경제적 사실과 경제 지식을 학습시킬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간접 지원책을 모색

- 부족한 경제 수업은 창의 재량 활동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등 통합 교육이 가능한 자료의 개발 등과 같은 노력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심화선택중심교육과정은 보다 많은 고등학교가 경제를 선택과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현재 전체 고등학교의 40%에서만 경제과목 선택이 가능)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경제과목의 필수화가 필요함.
- 미국의 경우, 고교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경제' 과목을 수강하고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각 주정부가 경제 과목을 필수로 지정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 ※ 따라서 관련 학계, 기관, 교사단체 등이 협력하여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경제 과목의 필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
- 경제 과목이 필수화되기 전까지는 보다 많은 학교들이 경제 과목을 선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임.
- ※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서 경제과목을 선택으로 제공하는지, 새로이 경제를 선택한 학교가 어떤 이유로 선택한 것인지, 선택권이 교사의 영향력인지, 교장의 영향력인지, 학생(부모)의 영향력인지, 경제과목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경제교육의 확충에 유용한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개선

- 중학교 3학년의 미시 및 거시경제 분야의 학습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주제 중심 교육은 현행 제7차 교육과정 체제로 환원시키는 것이 경제 교육의 연계성, 효과성 차원에서 더욱 바람직함.
-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같이 미시경제영역만을 다루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거시경제영역을 다룸으로써 경제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해야 함.
-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개정 교육과정은 주제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교사나 교과서 등 실행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교육과정과 같이 영역별 교육으로 환원하고 한정된 지역에서 주제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방안이 바람직함.

- 미국에서 사회과 통합교육으로 연구된 자료를 보더라도 초, 중, 고 학교 급별로 그 내용 체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 및 사례가 제시된 자료를 작성하는 등 사전적으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
-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 체계에 따른 주제중심 통합교육의 지속시행으로 경제는 물론 사회과 교육 전체가 부실화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현행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통합교육을 부분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와 같이 경제교육에 관한 내용 체계가 교육과정 때마다 크게 바뀌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편되지 않도록 학계의 전문가들이 고민하여 경제교육 표준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일 수 있음.
- 지난 2007년 경제학계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교육 표준 개념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이 연구에 따르면 ‘기본개념’ 12개, 기본 개념별로 2~5개의 내용으로 구성된 ‘내용요소’ 31개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감안한 주제들로 구성¹⁶⁾
- 금년 경제교육학자들이 중심이 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지난 연구를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기본개념의 연계성 강화, 학교 급별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한 표준 내용 서술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계획
-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는 초, 중, 고 경제교육의 교과 과정 콘텐츠 구성과 구체적 활용은 물론 표준 교재 없이 수행되는 실생활 중심의 경제교육에도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임.

□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 미국은 경제 분야를 전담하는 교사의 경우 경제학을 최소 6개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영국에서는 경제 교육 담당자들은 해당 분야의 학위와 교육 대학원 과정 1년을 수료해야 하는 등 경제 담당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요건을 두고 있음.

1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DI 경제정보센터(2007), ‘경제교육 표준 정립에 관한 연구’ 참조.

- 또한 교사자격증 취득이후에도 일정기간 경과 시 관련분야 이수 연수 시간 지정 등 교사들의 경제학적 기본 소양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 현실은 청소년 학교 경제교육의 경제 담당 교사의 경우, 대학에서 1-2과목의 경제학을 듣고도 경제 수업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우리 경우도 경제 담당 교사에 대해 경제과목 최소 5개 이상 수강 등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기존 교사들은 대학에 개설된 경제학 교육 과정을 일정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수강케 함으로써 경제학 소양의 함양과 새로운 경제학의 흐름과 내용을 학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이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추후 연구를 통해 체계화시켜야 할 것임.

- 한편, 전국 중학교 사회과 교사는 25,263명(수도권 11,705명, 지방 13,558명)임. 지방의 열악한 경제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지방의 사회과 교사를 위한 전문성 강화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음.

- 교사 연수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증가는 현실적으로 방학 기간 중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시간 및 예산 등의 제약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사이버 연수 등을 통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예컨대 5년에 1회씩 경제 분야의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제 과목별 교수학습법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교사의 학습지도 지원

□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추진

- 2007년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이 추진되었으나 17대 국회 파행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음. 금년 정기 국회에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재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춘 경제교육협의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범사회적 여건을 조성.
- 동 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경제교육전략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 － 경제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학계, 민간 교육기관, 경제교육 담당 교사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순수 민간성격의 경제교육협의회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제교육협의회를 통해 개별 기관이나 단체의 교재, 프로그램 등을 온 라인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 클리어링 하우스를 구축하여 운영
 - － 클리어링 하우스의 구축은 교육 수요자에게 자료의 적시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교육 공급자에게 수요자 중심의 교재 개발 및 자료 이용에 대한 피드 백 등과 같은 효율적인 쌍방향 의견 교환 채널을 갖출 수 있음.
- 경제적 사고와 지식에 바탕을 둔 합리적 의사결정과 행동 능력 제고를 위해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이해력 검정시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 현재 경제교육협의회와 KDI가 의뢰하여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가 중심이 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추진 체계, 방법, 예산 조달 등에 관한 기본전략 등이 도출될 예정임.
 - 미국과 일본에서도 경제이해력 시험이 실시되고 있음.

< 참고문헌 >

- 경제교육협의회, 『경제교육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KDI 경제정보센터, 2007.
-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해설(총론)』, 2000.
- 교육인적자원부, 『경제교육의 이해』, 2003.
- 금융감독원,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측정결과』, 2006
- 금융감독원,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결과』, 2003
- 김진영,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경제 교육』, 사회과 교사포럼 전국심포지엄, 2004.
- 류태하 · 김정섭, 『한국의 반 시장적 국민 정서의 원인 규명』, 2006.
- 박명호,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2005.
- 박상선,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한국 경제 교육의 방향』, 『지역 개발 연구』, 제 36 권 1호, 2004년 6월, pp. 23-39.
- 유정호, 『고등학교 경제교육과 학생들의 이해력』, 『경제교육』, KDI 경제정보센터, 2003.
- 이지선, 『각국 경제교육의 내용 비교』, 『Click 경제교육』, KDI 경제정보센터, 2006.12
- 전홍택 · 김진영,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 · 미 · 일 비교』, KDI 경제정보센터, KDI-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 세미나 자료, 2006.
- 최병모 · 김정호 · 이미경, 『미국의 경제교육 내용체계 분석』, 학술진흥재단, 2005.
- 최병모 · 김정호 · 이미경, 『일본 교과서에서의 경제교육내용 분석』, 학술진흥재단, 2004.
- KDI, 『OECD/미국 재무부 공동주최 금융교육 국제회의』출장보고서, 2008.5
-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 표준 정립에 관한 연구』, 2007.
- KDI 경제정보센터, 『초, 중, 고등학교 경제영역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2006.
- Abbott, Ian, “Economic Education in England”, *Online Journal for Social Science*

Education, 2003.

Burnett, Kimberly and Sumner J. La Croix,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in Hawaii”, 2003.

Hansen W. Lee, “Principle-based Standard: on the Voluntary National Contents Standards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pring, 1989.

Kim, Chin-Young, “Comparative Study on Economic Education: Korean and Japanese Schools”, NIRA working paper, 2000.

NCEE, “Survey of the States”, 2005, 2007.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Standard for Social Studies”, 1992.

OECD,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2005.

US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Taking Ownership of the Future : The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 2006

Walstad, William B., "Economic Education in U.S. High Schools", 2005.

지정토론

김진영(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지정토론

정규재(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